

# 주간기도정보

2024. 2. 6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교회, 은둔·고립 청년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

한국 은둔·고립자 지원기관협 발족



교회가 은둔·고립, 즉 외로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단체라는 제안이 나왔다. 외로움 문제가 국가 정책적 과제로 떠오를 만큼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동그라미홀에서 열린 ‘한국은둔고립자지원기관협의회’ 창립 행사에서도. 위기에 몰린 청년·청소년을 위해 오랜 기간 은둔·고립 청년과 그 가족을 발굴 지원해 온 전국 민간 기관들이 한데 뭉쳐 연대체를 결성한 것이다.

(사)지엘청소년연구재단을 비롯해 8개 기관이 동참하는데 향후 각 기관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은둔·고립자를 사회로 다시금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자는 게 이 단체의 창립 취지다. 이런 기관이 절실한 이유는 통계가 말해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2명 중 1명은 신체·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39세 청년 2만 1,360명 가운데 1만 2,105명이 ‘객관적 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협의회 창립과 함께 열린 포럼에서는 외로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청소년을 위한 각 기관의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랐다. 김진선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기에 은둔생활을 시작하면 청년기에 시작한 경우보다 은둔생활이 장기화된다”며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철경 지엘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는 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에 앞서 별도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외로움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단체로 교회를 꼽았다. 교회가 가진 인적·재정적 자원을 비롯해 교회 공동체가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십분 활용한다면 외로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동시에 대상자에 대한 회복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이사는 “멘토링을 통한 고립 청년·청소년 교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고립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연령·관심사·지역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 모임도 활용할 수 있다”며 “상담이나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자원도 풍부해 마음만 있다면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혜원 파이나다운청년들 대표는 은둔형 청년에 대한 공익 차원의 접근을 강조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단체인 씨즈의 이은애 대표는 은둔 청년을 발굴하는 방법의 하나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외로움’이 모든 세대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때,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단체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섬기는 기독 단체들에 지혜를 주사 일시적인 사람의 도움을 넘어 영원한 복음으로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참된 경건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섬길 때, 그 사랑에 전부로 나아오는 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참된 위로와 생명을 얻은 자들마다 복음의 증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 북한, 결핵환자 눈에 띄게 증가...격리 병상 ‘대부족’

소식통, “평안남도 순천, 안주, 개천, 덕천 등 공장 많고 인구 많은 지역 결핵환자 특히 많아”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결핵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코로나 또는 독감 유사 증상자와 함께 결핵환자도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 전역에서 결핵으로 고생하는 주민이 많이 증가했다. 평안남도에서는 순천, 안주, 개천, 덕천 등 공장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결핵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객혈, 기력부진, 신경쇠약, 체중감소 등 중증으로 증세가 악화된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결핵 치료제도 부족해 약물 치료 없이 자가 치료를 하거나 증상 초기에 약을 사용하더라도 완치될 때까지 약물을 지속 복용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핵 감염자가 적절한 격리 또는 치료 없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가족이나 동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전염병 대응 의사로 일하다 한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다시 취득한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겨울철에 기온이 하강하고 감기나 독감 또는 코로나가 유행할 때 결핵이 다시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감기로 인해 비활성화된 잠복 결핵균이 활성화되거나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감염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선임연구원은 “북한 의료 환경에서는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이 충분치 않고 약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최소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증상이 조금만 호전되면 약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결핵이 완치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세계 결핵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결핵환자가 전년 대비 1,000 명이 증가했다면서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2)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베소서 3:16,18-19)

하나님, 충분한 약과 의료시설이 없어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위험에 처한 북한에 진정한 치료자이신 주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어려운 순간에 부를 이름이 없어서 슬픈 북한 주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은혜를 주소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연약한 자들의 필요가 끊기지 않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주사, 살아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북한 주민의 육체와 속사람을 강건하고 충만케 하사 그 생명이 북한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는 백성 되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다음세대 탈종교화 가속...종교인 신뢰도도 하위권  
10명 중 3명만 종교인 신뢰...‘하나님 만나도록 영적 환경 조성해야’



다음세대의 탈종교화와 더불어 종교인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최근 국내 중·고등학생들의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만 종교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에게 직업별 신뢰도를 묻은 결과, ‘학교 선생님’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8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찰·경찰’(61.7%), ‘판사’(55.6%), ‘언론인’(37.6%), ‘종교인’(34.0%) 순이었다.

직업별 신뢰도 순위에서 종교인은 하위권에 속했고, 4점 척도로 신뢰도를 매겨달라는 질문에서도 종교인은 2.25점에 불과했다. 인플루언서(2.23점)와 단 0.02점 차이였다. 종교인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1020세대의 ‘탈종교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발표한 ‘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 종교인의 비율은 27.6%였다.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20대 종교인 비율은 16%로 더 낮았다.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회·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다”면서 “실제로 청소년 중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4%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다음세대의 탈종교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세속화도 청소년들의 탈종교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데연 측은 “한국사회는 빠르게 탈종교화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종교 없는 세상은 사람들을 세속화시켜 각종 사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목데연은 “한국교회는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가난한 성도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현상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고 전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이사야 26:3-4)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디모데후서 3:1,4-5)

하나님, 사회와 종교인에 대한 불신,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다음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기성세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며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 믿음의 증인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세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소망 없는 죄인 됨을 깨닫게 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다음세대가 결정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